



현직자와 상담하는 학우들 지난 23일 공개토론회 컨벤션 A홀에서 열린 직무박람회에는 삼성전자 등 18개 기업이 참여해 20개 기업 부스가 운영됐다. 위 사진은 삼성SDI와 SK하이닉스 부스에서 학우들이 현직자와 직무 관련 상담을 나누는 모습이다. 이재원 기자 jaewonii@

주요기사	
	사회보도 >2면 사라져가는 인구, 무너져가는 지방 대학
	기획 >3면 팝업스토어 열풍, 지속 가능성을 향해
	사진공모전 >4-5면 학우가 담은 우리 대학 캠퍼스
	만남 >8면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호텔관광경영학과

투표권 사각지대에 놓인 계열·자유전공학부 신입생

올해 우리 대학 신입생 2,944명 중 계열·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은 1,040명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은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선거에서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투표권 부재는 의사 결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우리 대학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교환학생을 제외한 학부 재학생은 전공 소속 여부와 관계 없이 총학생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선거공고문에는 ‘해당 학과 소속 학우’만 후보와 유권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계열·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은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광계열·25) 학우(이하 정 학우)는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투표권 부재는 단과대학 및 학과 의사 결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정보 격차와 참여 기회 박탈로 확대될 수 있다”며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 가배정 제도는 폐지됐으나 계열 신입생은 계열 내 단과대학에 학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은 원하는 단과대학에 학생회비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 학우는 “단과대학에 학생회비를 납부했음에도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학우 간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선거시행세칙 개정은 더 많은 논의의 필요”

일부 대학에는 계열·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학부 차원의 학생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은 학부 소속 학생 전체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전공 배정 이전 신입생도 학부 소속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총학생회 규정집에 ‘단과대학·계열·독립학부 학생회 정·부회장은 해당 단위 전체 학생회의 투표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계열 신입생이 대표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돼 현재 이 조항에 따라 계열 단위 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다.

김종승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

은 “중앙운영위원회와 대학본부에서 계열·자유전공학부 신입생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계열·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은 특정 학과 소속이 아니며 희망 전공으로 진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배정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전산상 학과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투표권 논의의 걸림돌이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회장은 계열·자유전공학부 신입생에게 투표권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 “해당 단위 학생회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많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
김예린 기자 moondarae@

교육 혁신 목표 내건 PBL 강의 강의 만족과 불만족 교차

PBL(Problem-Based Learning) 강의는 제시된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학우들은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고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러나 PBL강의 운영 방식에 대한 학우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 겪어”

우리 대학은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팀워크 ▲학습동기 ▲현장에서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목표로 PBL 강의를 시행 중이다. 지난 2014학년도부터 일부 과목에 PBL 방식을 도입했으며 2025-2학기 기준 전공·교양 과목을 포함해 70여 개의 과목이 PBL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PBL 강의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폼 활용)를 실시했다. “PBL 강의 방식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 100명 중 48명(48.0%)이 “만족”이라 답했다. “만족”이라 답한 익명의 A 학우는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보다 배워가는 것이 많다”고 전했다. 반면 “불만족”이라 답한 익명의 B 학우는 “팀원을 잘못 만나거나 교수의 강의 없이 전부 학우 발표로만 진행되는 경우 일반 강의보다 못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PBL 강의의 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0명 중 54명(54.0%)이 ‘그렇다’고 답했다. 겪은 어려움으로는 ▲복수 응답 ▲팀원 참여도 부족 ▲역할 분담 문제 ▲시간 조율 문제 순으로 언급됐다. 익명의 C 학우는 PBL 강의 운영 방식에 대해 “팀 프

로젝트에서 팀원의 참여도가 낮은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확산되는 PBL 강의의 운영 효과와 한계는

현재 ▲우송정보대학교 ▲한국공과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다양한 대학에서도 PBL 강의를 운영 중이다. 우송정보대학교는 지난 2021년 ‘PBL 및 Flipped Learning 우수 사례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으며 다양한 교과목에 PBL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공과대학교는 교원이 직접 PBL 강의 신청서를 제출해 강의 개발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양대학교는 IC-PBL(Industry Coupled PBL) 강의를 통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PBL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이윤진 교수(이하 이 교수)는 “PBL 강의는 팀원과 아이디어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하며 사고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또한 PBL 강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에 대해 “대형 강의에서는 좋은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세심한 지도와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수강 인원을 20~25명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PBL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는 좋은 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좋은 팀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린 기자 moondarae@
배서현 기자 Hyeonee@
>7면으로 이어짐



세종대신문사 68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열정 있는 학우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지원 방법:

세종대신문사 인스타그램(@sejongpress)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세종대신문)로 문의

대학 단신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TOPIK 및 세종대학한국어 프로그램 개강

우리 대학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가 2025-2학기 개강을 맞아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TOPIK Class'와 '세종대학한국어' 수업을 운영한다. 'TOPIK Class'는 TOPIK 1-6급 취득을 목표로 문해 유형 분석과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제공한다. '세종대학한국어'는 한국어 필수 문법과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장현목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장은 "다양한 수준과 목적에 맞는 교육 과정을 통해 학습의 즐거움과 실질적 성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주)와 교육 협력 MOU

우리 대학은 지난 8월 28일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Siemens Digital Industries Software·Siemens DISW)와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과대학 인제 양성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기술·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우리 대학 학습자들은 최신 산업용 소프트웨어 활용법과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임종화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적 수준의 산업 소프트웨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은하 천문학 탄생 100주년' 인문·과학 융합 강좌 개설

미래교육원이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은하 천문학 탄생 100주년: 천문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우주의 역사' 강좌를 연다. 강좌는 천문학이 인류의 역사·철학·윤리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과학적 사고와 우주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주제는 ▲하블의 발견과 우주론 대논쟁 ▲올베르스의 역설과 빅뱅 우주론 ▲상대성이론과 시공간 패러다임 전환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 등이다. 강의를 맡은 자유전공학부 지우배 교수는 "강의실을 넘어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대신문

발행인	임종화	주간교수	고영대	간사	최지훈
편집국장	박혜린	교육부장	배서현	기획부장	이재원
기획2부장	양수영	홍보부장	김예린	총무부장	김진영
대표전화	02) 3408-3114				
신문사	02) 3408-3352				
대표메일	press@sejong.ac.kr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신문사 (학생회관616호)				

독자 모니터링

청년을 넘어 사회의 과제까지 함께한
세종대신문



이정연(데이터사이언스학·23)

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3면 학술 면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의 변화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다뤘다. 김대휘 교수님 인터뷰를 통해 ARS 조사와 패널 조사, AI 기반 조사 등 다양한 여론조사 방식을 설명했으며 대표성 문제와 왜곡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았다. 사회 현상과 학술적 분석을 균형 있게 담아낸 점이 돋보였다.

4·5면 특집 면은 706호의 백미였다. '청년 자살'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다루며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안나 교수님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배치해 설득력을 더했다. 다만 독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생생한 목소리가 조금 더 보강됐다면 공감대 형성에 더 큰 힘이 됐을 것이다. 6·7면 세종마당면 및 8면 만남면에서는 ▲교수칼럼 ▲문화나들이 ▲독자에세이 ▲기자가 말한다 ▲사이버국방학과 소개 기사가 담겼다. 최근 F1 영화를 보며 레이싱에 많은 관심이 생긴 학생들이 문화나들이를 읽으며 흥미를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706호는 단순히 학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청년과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독자 친화적 기획을 보완한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신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706호는 대학신문이 다뤄야 할 주제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깊이 있게 풀어낸 호였다. '수면 부채와 청년 불면 문제', '여론조사의 변화와 한계', '청년 자살률과 사회적 과제' 등 캠퍼스 내부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의식을 담아내며 대학신문다운 무게감을 드러냈다. 먼저 1·2면에는 ▲중앙동아리 공간 개편 갈등 ▲강사 미채용으로 인한 강의 공백 ▲대양AI센터 중앙 출입문 폐쇄 등 학내 현안에 대해 다뤘다. 자칫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사안을 학우 생활권 문제로 확장해 불편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접근을 보여줬다. 다만 1면 사진보도의 경우 이전 호수에 실려있던 사진들에 비해 집중이 분산되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이어 사회보도에서는 청년층의 수면 부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설문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했으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해결책을 제안하며 기사의 신뢰도를 높였다. 다만 수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이 다소 부

예산 늘어난 교내 장학금, 운영 현황은

본지는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교내 장학금 제도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폼 활용)를 실시했다. 교내 장학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0명 중 49명(49.0%)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에 교내 장학금 제도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내 장학금

교내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성적이나 가계 소득에 따라 지급된다. 성적 관련 장학금에는 성적우수 장학금과 성적향상 장학금 등이 있다. 성적우수 장학금의 경우 평점 평균 3.0 이상, 성적향상 장학금의 경우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5 이상과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0 이상일 때 지급된다.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되는 에텔바이스 장학금II는 직전 학기에 6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평균이 2.6

이상이면 지급된다. 이 외에도 봉사 장학금이나 어학우수 장학금 등 총 33개 유형의 교내 장학금이 운영되고 있다.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0명 중 62명(62.0%)이 교내 장학금을 수혜한 경험이 있으며 수혜 유형별로는(복수 응답) ▲에텔바이스 장학금II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향상 장학금 순으로 많았다.

성적우수 장학금과 에텔바이스 장학금II를 받은 유예지(경상호텔관광계열·25) 학우(이하 유 학우)는 교내 장학금 제도에 대해 "등록금이 우선 감면돼 부담이 줄어들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국가근로장학금과 에텔바이스 장학금II, 학생오케스트라 장학금을 받은 익명의 A 학우는 "식비와 교재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교내 장학금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응답자 100명 중 51명

(51.0%)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개선점으로는(복수 응답) ▲교내 장학금 종류 확대 ▲교내 장학금 규모 확대 ▲성적장학금과 가계관련 장학금 간 불균형 해소 순으로 언급됐다. 이에 대해 유 학우는 "장학금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낮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 비율 18.4%"

'2025학년도 학교회계 자금예산서'에 따르면 교내 장학금 예산은 약 353억 원 배정됐으며 이 중 학부 장학금에는 약 186억 원이 할당됐다. 이는 전년 대비 전체 약 48억 원, 학부 약 20억 원 증액된 수치다. 이에 대해 학생지원과는 "교내 장학금 예산 총액은 매년 등록 인원이나 장학제도의 변경에 따라 편성된다"며 "올해는 등록금이 인상되면서 장학금 예산도 함께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어 증액된 예산이 에텔바이스 장학금II 9구간 확대 시행과 기타 장학금 수혜자 확대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지원과는 "최근 3년간 등록금 수입 대비 실제 장학금 수혜 비율을 약 18.4%로 유지하고 있다"며 "타 대학의 평균인 17%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내 장학금 제도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매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점에 가깝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생지원과는 "교내 장학금 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습자들의 교내 장학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수영 기자 suyoung@
이재원 기자 jaewonii@
▶ 7면으로 이어짐

지방 대학, 생존 넘어 지역 사회 성장 거점으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은 총 332개이며 이 중 비수도권 대학은 217개로 전체의 65.4%를 차지한다. 2025학년도 대입 추가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49개의 대학 가운데 40개가 지방 대학이었으며 전체 미선발 인원 1,120명 중 1,050명 또한 지방 대학에서 발생했다. 이런 지방 대학 위기는 대학 내부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수도권 집중, 지방 대학 위형

지난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일반전형 원서 접수 경쟁률 분석 결과 190개 대학 4,889개 학과 중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미달 학과는 163개로 집계됐다. 이 중 비수도권 대학이 162개로 전체의 99.4%를 차지했다. 대학 입학 정원 미달은 폐교나 폐교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강원관광대학교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총 5개의 학과를 폐교한 뒤 지난해 폐교했다. 한국국제대학교의 경우 지난 2023년 신입생이 27명에 그쳐 폐교했다.

이런 지방 대학 위기는 청년층 수도권 출몰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가이동'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 순이동 인구는 약 96만 명에 달하며 약 6만 명의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유입됐

다. 유입의 주된 이유는 취업(연간 4~7만 명)과 교육(연간 1~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호텔관광경영학과 고영대 교수(이하 고 교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에는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인턴십, 설명회 등의 기회가 적다"며 "수도권 대학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는 총인구의 13.8%인 714만 7,000명으로 2060년에는 총인구의 8.9%인 377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이 지방 대학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사회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 대학 위기의 영향

지방 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입학 정원 미달은 곧 대학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지난 2023년 발표한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손실 분석'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정원 내 신입생은 2012년 약 26만 명에서 2023년 약 23만 명으로 감소했다. 대교협은 사립대학의 예상 운영 손실의 약 94.4%가 지방 대학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지난 2019년 한국은행

강릉분부가 진행한 강릉시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릉시 대학생은 강릉시 전체 인구 대비 13.2%로 전국 평균(5.3%)에 비해 두 배가량 높으며 이들의 연간 총지출액은 1,6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강릉본부 관계자는 "대학생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8년 남원시에 있는 서남대학교의 폐교 이후 6년간 남원시의 연간 소득은 최대 344억 원 감소했으며 대학 인근 상권이 무너지고 원룸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폐교 용지를 활용해 지역 활력을 모색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12년 폐교된 성화대학교를 리모델링해 복합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는 '천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벌 플랫폼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330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7년 운영 시작이 목표다. 해당 용지에서는 ▲드론 산업 혁신단지 조성 ▲스타트업 기업 육성 지원 ▲실감미디어 콘텐츠 체류관 구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남대학교 폐교 용지 또한 2027년부터 전북대학교의 남원 글로벌캠퍼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과의 연계 속에서 해결 방안 모색해야"

고 교수는 대학의 외국인 신입

생 모집 제도에 대해 "언어 및 문화 적응의 어려움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며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 교수는 해당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글로벌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성화 지방 대학 위치에 대해서는 "전체 지방 대학 위치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단기적인 성과 중심으로 이뤄져 대학이 장기적으로 비전을 수립하기보다 단기 성과 달성에 치중하게 된다"며 부작용을 설명했다.

고 교수는 지방 대학이 시행할 수 있는 자구책으로 평생 교육이나 지역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제시하며 "지방 대학이 지역 사회의 성장 거점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 대학의 차별화 요소는 지역 산업과의 밀착성"이라며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지방 대학이 생존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교수는 "지방 대학을 살리는 것이 사회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학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수영 기자 suyoung@
김예린 기자 moondarae@

참과 밝음의 선봉, 세종대신문사

찬반토론 참가자 모집

세종대신문에서 학우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자 찬반토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토론 주제:
주 4.5일제를 도입할 때

기존 임금을 100% 유지해야 하는가 **근무 일수에 맞춰 삭감해야 하는가**

모집 기간: 9월 29일(월) ~ 11월 3일(월)
참가 방법: 세종대신문사 인스타그램(@sejongpress)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세종대신문)로 문의

©게티이미지뱅크

POP-UP STORE

반짝인기 뒤 쌓이는 폐기물, 팝업스토어의 두 얼굴

강남역·성수동·홍대입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 단기간 운영되는 ‘팝업스토어(Pop-up Store)’가 잇따라 등장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팝업스토어 운영 종료 후 막대한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팝업스토어 폐기물 문제 현황과 제도적 보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원 기자 jaewonii@ 배서현 기자 Hyeonee@ 김진영 기자 jinyoung@



브랜드를 체험하는 새로운 방식인 팝업스토어

팝업스토어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인터넷의 팝업창처럼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매장이다. 지난 2002년 미국의 할인매장 타깃(Target)이 뉴욕 맨해튼 첼시 부두의 보트를 임대해 단기간 상품을 판매한 것이 팝업스토어의 시초가 됐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체험형 공간의 수요가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초기에는 재고 판매나 신제품 홍보를 위한 임시 공간에 그쳤으나 현재는 건물 전체를 대관해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압축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했다. 분야 역시 패션

및 잡화에서 시작해 ▲뷰티 ▲엔터테인먼트 ▲캐릭터/IP ▲F&B 등으로 확대됐다. 팝업스토어 관련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팝가(POPGA)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된 팝업스토어는 총 1,713개로 월평균 140개 이상 운영됐다. 특히 성수동은 전체 입지의 28.5%를 차지하며 ‘팝업스토어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 결과 성수동 방문객은 2018년 1,999만 명에서 지난해 2,920만 명으로 46.1% 증가했다. 성수 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4,364억 원에서 2024년 1조 5,497억 원으로 10년간 약 3.5배 증가했다. 이는 팝업스토어의 확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팝업스토어 전문 기업 스위트스팟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팝업스토어의 평균 운영 기간은 17.9일로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 팝업스토어는 ▲브랜드 인지도 구축 ▲시장 조사 ▲제품 홍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정식 매장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운영 기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효율적이

다. 또한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방문객들의 SNS 공유를 통해 별도의 광고비 없이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5월 하림은 레트로 포차 콘셉트로 ‘장하다 하림 맥시칸!’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맥시칸치킨과 맥주를 1,000원 대로 즐기는 경험을 제공해 누적 방문객 2만 명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2월 버추얼 아이돌 그룹 이세세계아이돌의 ‘이세돌팝업쇼?’ 팝업스토어는 콘서트장처럼 무대를 꾸미고 굿즈를 판매해 2주

간 3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처럼 팝업스토어의 체험적 특성은 브랜드 각인 효과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팝업스토어의 성장 이면에는 환경 문제가 존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팝업스토어 폐기물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2017년 6,018만 t에서 2022년 8,106만 t으로 34.7% 증가했다. 특히 성수동이 속한 성동구 내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량은 2018년 51.2t에서 2022년 518.6t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친환경 팝업스토어를 위한 첫걸음

실제로 팝업스토어 한 개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평균 3t이며 대형 팝업스토어의 경우 최대 30t까지 발생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하루 300kg 이상, 5t 미만의 폐기물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팝업스토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처리 책임이 민간에 맡겨져 있어 폐기물 발생량을 별도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임시 구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가벽 ▲플라스틱 ▲합판 ▲현

수막 등 일회성 자재는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처리된다. 특히 합판과 목공용 스테이플러를 함께 사용할 경우 해체 후 재사용이 불가능해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팝업스토어 폐기물의 재활용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팝업스토어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4세~49세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19명(77.4%)은 팝업스토어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재활

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81명(85.1%)은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방안으로는(복수 응답) ▲교환·환불 규정 개선 ▲판매 상품 정보 안내 강화 ▲환경문제를 고려한 매장 운영 순으로 언급됐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팝업사이클링(Pop-Upcycling)’이다. 팝업스토어와 업사이클링의 합성어인 팝업사이클링은 운영 후 폐기되는 자재를 재활용해 다른 팝업스토어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0월 화장품 용기 수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른 팝업스토어에 사용된 가구와 폐기물 등을 재활용해 팝업스토어 전시를 구성했다. 미샤는 지난해 1월 팝업스토어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활용해 설치미술 팝업사이클링 프로젝트 ‘포레스트(FoRResT)’를 진행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 4월 올바른 팝업스토어 운영을 위한 ‘성동형 팝업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 가이드북은 팝업스토어 준비 단계에

서 ▲다회용기 ▲모듈화된 구조물 ▲재사용 가능 소재 활용과 폐기물 분리배출함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팝업스토어 철거 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도 지침을 내렸다. 폐기물이 5t 이하인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빠기’를 통해 폐기물 배출 신고 후 처리, 5t 이상인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 분리배출 실천’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줄일 것을 강조하며 친환경적 팝업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에 힘썼다.

경영전문대학원 이성훈 교수님 인터뷰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과제가 된 친환경 팝업스토어



이성훈 교수 (경영전문대학원)

팝업스토어의 전략적 장점과 경쟁력

팝업스토어는 소비자가 브랜드나 상품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프로모션 방식이다. 지난 2018년 연남동에서 열린 ‘제주맥주’ 팝업스토어는 제주도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와 시음 공간

을 마련해 큰 인기를 끌었다. 유튜브 슈카월드 의 ‘990원 소금빵’ 팝업스토어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팝업스토어의 근본적 목적인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빵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빵 가격이 높은 시점에서 990원 소금빵은 소비자의 주목을 끌었다. 팝업스토어는 특정 상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효과적이다. TV 광고나 드라마 PPL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큰 비용이 발생하지만 실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광고가 넘쳐나는 시대에 관심 있는 정보에만 집중하는 ‘인지적 구두쇠’ 성향을 보여 광고에 노출되더라도 관심이 없으면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팝업스토어는 참여 의사를 보이는 특정 타깃인 MZ세대를 겨냥한다. 이들은 팝업스토어에서의 경험을

SNS에 공유하고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구전을 유도한다. 체험 만족도가 높으면 브랜드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재구매 의사까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와 추구 방향을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알릴 수 있다.

팝업스토어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제주맥주’ 팝업스토어는 제주도 해녀 콘셉트를 선보였으며 ‘맥심 모카우체국’ 팝업스토어는 ‘마음을 전한다’는 브랜드 메시지를 바탕으로 엽서와 편지지를 지인에게 보낼 수 있는 우체통 콘셉트를 선보였다. 소비자는 상품뿐 아니라 브랜드가 팝업스토어에 담은 이야기도 경험한다. 팝업스토어는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어떤 즐

거움과 도움을 주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팝업스토어의 부정적인 측면은

브랜드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극단적 마케팅 과정에서 관련 업계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기도 한다. ‘990원 소금빵’ 팝업스토어의 경우 저렴한 가격을 위해 원재료 직송, 빵 모양 단순화, 포장 간소화 등을 통해 원가를 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마케팅은 품질을 강조하는 소규모 빵집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시장의 일반적인 질서를 왜곡하고 유통 메커니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유입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면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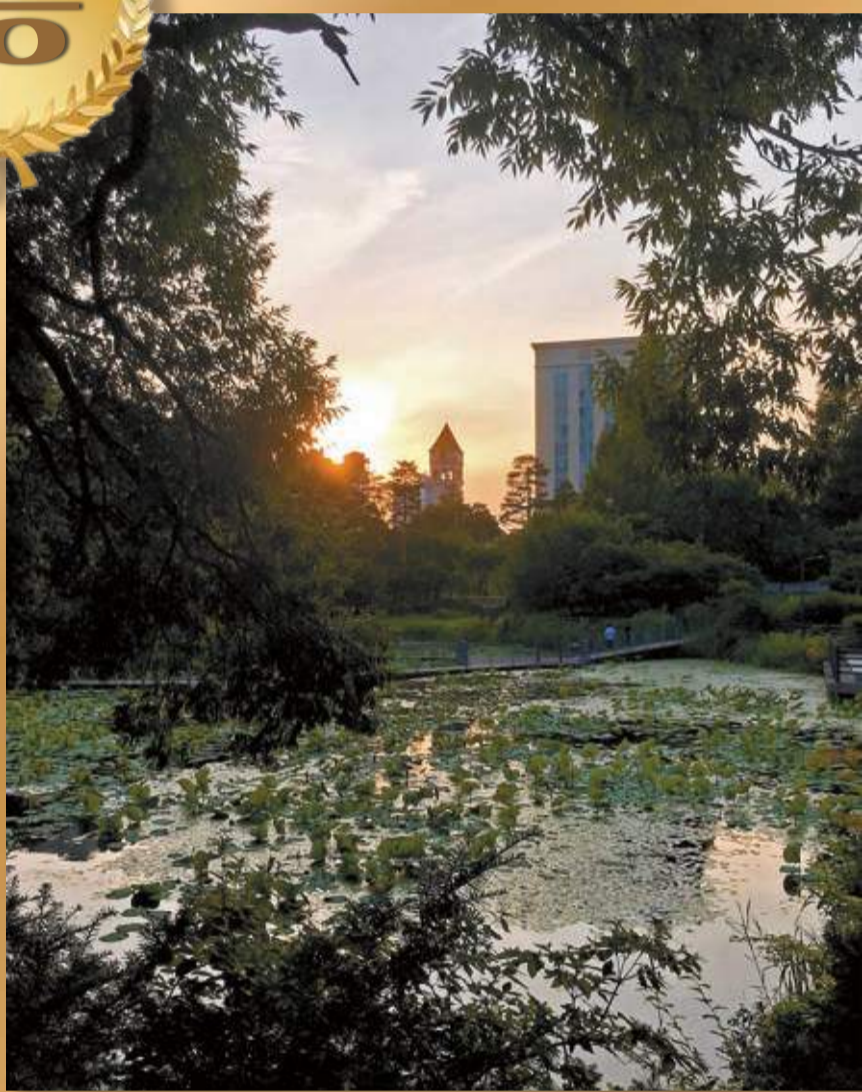
기업과 국가의 사회적 책임은

팝업스토어는 마케팅 차원에서 다양한 굿즈, 샘플 등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 매장보다 많은 일회용품이 사용돼 폐기물을 양산한다. 소비자가 친환경을 요구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친환경 소비의 가치를 인식해 때로는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마신는 구리축제’나 ‘성북세계음식축제’에서는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반납하는 방식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했다. 국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같은 규제를 통해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므로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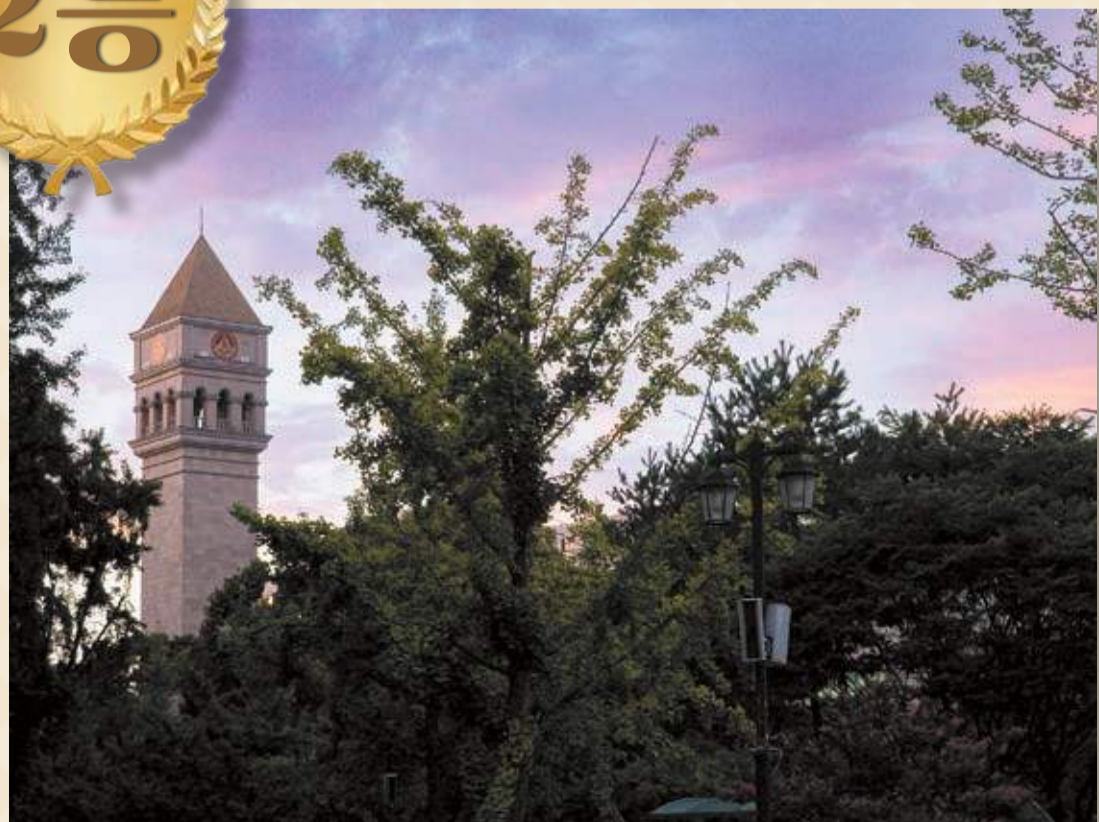
세종대신문사 사진공모전 수상작

본지는 우리 대학 캠퍼스의 풍경을 기록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우리 대학 캠퍼스'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에 참여한 학우들은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의 감명을 소개했다. 다음은 1-3등에 입선한 작품들이다.



김나은 학우

우리 대학 근처를 산책하다가 마주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연못 위로 드리운 연잎과 석양 사이로 우리 대학의 상징 중 하나인 시계탑이 보인다.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캠퍼스의 낭만적인 풍경을 보여준다.



윤재하 학우

비가 갠 9월의 황혼 시간대다. 비가 갠 직후에는 대기 중의 수증기에 의해 빛의 산란 정도가 바뀌어 붉은 하늘이 연출된다고 한다. 대양 타워와 키를 경쟁하는 은행나무가 인상적이다.

3등



공원명 학우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길과 건물의 입구를 사진으로 담아냈다. 당연하게 여겼던 공간이지만 카메라를 통해 바라본 순간 그 속에도 소중한 아름다움과 따뜻한 분위기가 스며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익숙함 속에서 발견한 작은 감성은 우리 대학 캠퍼스가 가진 또 다른 매력이며 이런 일상의 풍경이 모여 우리 대학의 진정한 모습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3등

공원명 학우

우리 대학의 상징인 시계탑은 사계절 내내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특히 노랗게 물든 단풍과 함께 어우러진 시계탑은 평소와는 또 다른 운치를 선사하며 세종의 가을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다.



3등



박세연 학우

교내에서 우연히 만난 프랑스에서 온 경영학 전공 학우 Lucie에게 양해를 구하고 함께 촬영한 사진이다. 자연스러운 만남의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스트로보와 삼각대를 활용해 촬영했으며 교내의 배경을 함께 담아 캠퍼스의 다채로운 분위기를 표현했다. 낯선 만남이지만 따뜻하게 어깨동무를 한 모습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학우들이 교내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장면을 보여주고자 한 사진이다.

교수칼럼

신뢰할 수 있는 AI 언어모델을 위해



박예찬 교수
(수학통계학)

최근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AI 언어모델에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현상을 뜻한다. AI 언어모델에 역사적 사건을 물었는데 실제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큰 수의 계산을 시켰는

데 틀린 답을 자신 있게 내놓는 경우가 그 예이다. 겉보기에는 똑똑해 보이지만 이런 환각 현상 때문에 AI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야에 그대로 맡기기는 어렵다. 길 안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잘못된 길을 알려 줄 때는 다시 확인하면 그만이지만 의료 상담 앱이 잘못된 약명을 제시한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 또 법률 상담용 챗봇이 잘못된 판례를 자신 있게 인용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더 믿을 수 있는 AI’다. 현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이나 외부 지식 검색을 결합하는 방

법 혹은 여러 모델의 답변을 교차 검증해 일관성을 높이는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는 AI 언어모델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기계적 해석성(mechanistic interpretability)’이라고 부른다. 흔히 AI 모델을 ‘속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라고 한다. 그러나 내부 과정을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다면 “왜 이런 답을 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의 토대가 된다.

둘째는 AI의 결과를 형식적 검증(formal verification)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칙연산을 언어모델에게 직접 시키지 않고 Python 등 계산에 특화된 프로그램에 맡기면 오류 없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논리적 추론까지도 ▲Coq ▲Isabelle ▲Lean 같은 형식 논리 언어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이런 도구들은 주어진 답안이 논리에 맞는지 엄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AI가 낸 답이 옳은지 틀린지 확실하게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다. 여기서 수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수학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

에 언어모델의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은 곧 그 모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또한 수학 문제는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기에 AI 언어모델이 어떤 원리로 논리적 추론 능력을 형성하는지 파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나아가 수학 증명은 엄밀한 논리 구조를 필요로 하므로 AI가 증명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곧 규칙을 철저히 따르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주요 AI 연구기관들은 언어모델의 수학적 추론 능력을 핵심 성능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과 OpenAI의 모델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에 버금

가는 성과를 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물론 수학만으로 AI의 모든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논리적 사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학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결국 앞으로 AI 언어모델이 지향해야 할 모습은 단순히 그럴듯한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설명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AI다.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넘어 책임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다. 환각이 아닌 진실을 말하며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자리 잡는 AI가 곧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다.

문화나들이

문화는 대중 매체의 벽을 뚫고



장서연(국어국문학·23)

대중 매체는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을 매개하는 도구다. 이 단어는 근대에 신문과 잡지가 일상화되며 처음 쓰이기 시작했고 이후 청각을 활용하는 라디오와 시청각을 동원하는 TV가 등장하면서 대중 매체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오늘날 대중 매체는 ▲영상 매체 ▲음성 매체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로 분류된다. 디지털 매체와 뉴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은 유형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전환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체의 ‘분류’보다는 매체 간 자유로운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콘텐츠가 단일 매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넷플릭스 드라마 ‘D.P.’, 디즈니+ 드라마 ‘무빙’ 등 최근 큰 인기를 얻은 작품들도 알고 보면 다른 매체에서 창작된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최근 필자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애니메이션 영화 ‘연의 편지’도 이런 사례 중 하나다. 오는 10월 1일 개봉 예정인 영화 ‘연의 편지’는 지난 2018년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됐던 조현아 작가의 여름 특선 10부작 웹툰이 원작이다.

작품의 주인공 이소리(이하 소리)는 왕따를 당한 뒤 어릴 적 잠시 지냈던 할머니 댁으로 돌아와 그곳 중학교로 전학을 간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소리는 학교 책상 서랍속에서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발견한다. 학교 소개와 다음 편지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담긴 이 편지를 계기로 계속해서 새로운 편지를 찾아나가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작품을 매체 간의 전환이 이뤄진 사례로 특별히 소개한 이유는 원작 웹툰이 완결된 이후 ‘연의 편지’가 새롭게 공개됐던 독특한 매체 방식 때문이다. 네이버 웹툰은 플레이

툰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독자가 직접 주인공이 된 듯 작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정된 그림을 쭉 아래로 내리면서 읽는 기존의 웹툰과 달리 플레이툰은 독자의 스크롤과 터치에 맞춰 컷마다 그림과 말풍선이 등장한다. 여기에 등장 효과, 움직임, 효과음이 함께 더해져 평면 그림이 영상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기도 한다. 덕분에 독자는 자신의 시선과 결정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듯한 생동감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배경음악이 분위기에 맞춰 끊임 없이 흐르고 암호 입력이나 입력 및

추기 같은 활동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재미도 더해진다. 이런 요소들은 작품을 몰입하도록 도와 새롭고 재밌는 경험을 선사한다. 이렇듯 ‘연의 편지’는 일반적인 웹툰으로 시작해 플레이툰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거쳐 인쇄 매체인 단행본, 그리고 이제는 영상 매체인 애니메이션으로 이어지며 매체 간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큰 인기를 얻는 좋은 작품이 다양한 매체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듯 애니메이션 영화 ‘연의 편지’는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하 BIAF) 최초의

한국 장편 개막작으로 제26회 BIAF 국제 경쟁 장편 부문 ▲기술상 ▲심사위원상 ▲음악상을 수상했다. 중학생의 순수한 시선으로 그려낸 따뜻한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의 전환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다. 귀여운 그림체, 서정적인 분위기, 고유의 색깔을 가진 아름다운 작품 ‘연의 편지’를 많은 이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극장에서 한 번, 플레이툰으로 한 번, 단행본으로 또 한 번 감상하며 매체의 전환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감각들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작심살일

5일간 5만 원으로 살기



배서연 기자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 마주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전을 망설이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작심살일’에서는 기자가 직접 도전하고 그 생생한 후기를 남긴다.

난달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1.6%P 상승한 수치다. 이런 고물가 시대 속에서 소비의 중요성과 절약의 필요성을 체감해보고자 하루 1만 원, 5일간 총 5만 원으로 살아보는 도전에 나섰다. 도전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지출 4만 8,200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가장 많은 지출은 의외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샌드위치나 음료처럼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데 사용한 금액은 총 1만 8,800원이었다. 큰돈을 아끼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소액을 반복해서 지출하는 것에는 소

홀했다. 소액 지출이 반복되면 어느새 큰 지출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필자는 우리 대학 행복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어 도전 기간에 행복기숙사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을 이용해 기본적인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지만 이번 도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달 음식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최소 주문 금액이 대부분 1만 원 이상이라 한 번만 시켜도 도전 실패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구내식당에서만 식사를 해결하다 피자를 먹게 된 날도 있었다. 지난 15일 신문사 중간회의를 마친 후

지원받은 식대를 이용해 동료 기자들과 함께 피자를 시켜 먹었다. 도전 기간 중 유일하게 사치스러운 한 끼였고 즐거움도 컸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단연 배달 음식을 끊는 일이었다. 이용하던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 앱)에서 지난 1년간의 총 주문 금액을 확인하자 예상치 못한 금액이 눈앞에 펼쳐졌다.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한 끝에 결국 배달 앱을 삭제했다. 뜻밖의 성과였다. 앞으로는 ‘배달 앱 없이 살기’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또한 5일간의 생활을 위해 매일 마시던 커피에 변화를 줬다. 평소에는 한 잔에 6,000원이 넘는 브랜드

의 커피도 아무렇지 않게 마셨지만 이번에는 저가 커피 브랜드를 찾아야 했다. 덕분에 저가 커피 브랜드가 사랑받는 이유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우리 대학 광고도관 지하 1층에 있는 카페 디셔너리와 학생회관 2층에 있는 제주물빵을 즐겨 이용했으며 각각 아샷추와 아이스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를 추천한다. 이번 도전을 통해 얻은 또 다른 깨달음은 계획적 소비의 필요성이다. 계획 없이 들린 드럭스토어에서 이것저것 담으면 3~4만 원이 훌쩍 넘고 약속 시간에 늦어 택시를 타면 소위 명칭비용이라 불리는 지출이 발생한다. 이전에는 하루 만에 5만 원

이 훌쩍 넘는 금액을 쓰는 날도 많았지만 이번 경험을 계기로 계획적 소비의 중요성을 느꼈다. 5일간의 도전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필자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한 번쯤은 지출 한도를 정해두고 생활해보기를 권한다. 평소 어떤 부분에 돈을 많이 쓰는지, 어디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다면 지난 1년간 총 주문 금액을 확인해볼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그 금액은 소비 습관을 바꿔주는 강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세종고사

세종고사

이름: _____
학번: _____

1. 제시된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강의 방식은 무엇인가? (1면)

답: _____

2. 교내 장학금 예산 중 학부 장학금에 할당된 금액은 얼마인가? (2면)

답: _____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대신문사

- 답안지를 채워라!
- 신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다.
 - 카카오톡에서 @세종대신문을 추가한다.
 - 카카오톡에 문제의 답과 아래 사항을 보낸다.
-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706호 당첨자
정답: 전일교원 / 수면 부채
당첨자 : 손승희 (바이오산업자원공학·22)
정택영 (바이오융합공학·23)

정답 : 000 강의 / 약 000억 원

이름 / 학과 / 학번

기자가 말한다1

정보의 바다에서 중심을 잡는 법



김예진 기자

전자기기 보급과 SNS 확산으로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허위 정보와 왜곡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한 채 정보를 수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회적 왜곡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곧 경쟁력이 되는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용이 아닌 비판적 해석과 능동적 활용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즉 매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힘이 핵심 역량으로 부상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은 자신이 허위 정보를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인사들이 워싱턴 D.C.의 한 피자가게에서 아동 성매매를 벌였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확산됐다. 근거 없는 익명 계정에서 비롯된 소문이었지만 대중은 쉽게 선동됐고 관계자들은 인신 공격과 시위로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사이폴 이슬람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설사병연구센터 방글라데시본부 감염병학부 연구원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정보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최소 5,800명이 치료를 받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20~50대 성인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26명(76.2%)이 언론, 지인,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요 유통 경로는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이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정보를 판단할 수 있을까. 우선 개인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해야 한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작성자와 인용 자료, 출처 플랫폼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소 두 개 이상의 출처를 비교하는 등 동일 사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 사회 전체의 정보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는 이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8년부터 '디지털 교육 계획'을 통해 회원국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핀란드는 2014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를 국가 정규 교육과정과 포함시켜 허위 정보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진

행 중이다. 또한 호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연합(AMLA)을 설립해 호주 국민의 미디어 관련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 계획' ▲교육부의 '202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지원 사업' 등이 그 반증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의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교육 기관과 정부는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사례 중심의 비판적 사고 훈련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실습과 토론을 병행하는 적극적 교육이 필요하다. 정보의 바닷속에서도 다각적 시각을 유지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비판적 사고를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정보 환경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1 ▶1면에서 이어짐

갈등의 무대가 된 PBL

PBL(Problem-Based Learning) 강의는 단순한 지식 주입을 넘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의 깊이를 더하는 교육 방식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협업 능력 강화를 지향하는 PBL 강의는 전통적 강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대학 역시 이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14년 PBL 강의를 도입하며 학습자 중심 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PBL 강의 운영의 현실은 이상과 간극을 보인다. 본지가 PBL 강의 만족도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00명 중 38명(38.0%)이 앞으로 PBL 강의를 수강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익명의 A 학우는 "학우의 발표로만 이뤄지는 강의는 흐름이 산만해지기 쉽다"며 담당 교수의 체계적인 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는 학우들이 단순한 자율 발표 수업에 넘어 교수의 역할 강화와 강의 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은 이런 인식을 정확히 파악해 개선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

일부 학우들은 주도적 참여를 통해 학습 효과를 체감했다고 평가했지만 ▲교수 피드백 부족 ▲팀원과 의 갈등 ▲평가 기준 불명확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PBL 제도의 본질적 한계가 아닌 운영 체계 미비에서 비롯된 결과다. 특히 팀 프로젝트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협업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 PBL 강의의 취지와 모순된다. 일부 학우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고 참여가 저조한 학우는 학습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른바 '버스타다'라고 불리는 일부 학우들의 무임승차 행태는 팀 전체의 성과를 저해하고 성실히 참여한 팀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PBL 강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인 만큼 학우들의 주도적이고 성실한 태도 또한 뒷받

침되어야 한다. 교수의 적극적 중재와 지도, 협업 과정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동반되어야 이런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피드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학우들은 학습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PBL 강의에서 교수는 단순한 진행자가 아닌 학습을 이끄는 조력자로서 명확한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강 인원의 조정도 필요하다. 일부 PBL 강의는 35~40명 정도의 수강 인원만으로 구성된다. 적정 규모의 강의 운영은 교수와 학우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며 개별 피드백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강의평가는 학우들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는 실질적 개선 통로로 기능해야 한다. 교수는 강의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강의의 질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매 학기 교육혁신처 홈페이지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과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가 주관하는 교수법 연수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교수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PBL 강의 담당 교수는 이와 같은 지원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도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PBL 강의는 문제 해결력과 협업 능력과 같은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도구다. 운영 과정의 허점이 방치된다면 학우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이 이뤄진다면 PBL 강의는 학우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우리 대학이 이런 변화를 통해 학우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장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기자가 말한다2

신입이라 쓰고 경력직이라 읽는다



김진영 기자

채용 공고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곧잘 '신입'이라는 단어 옆에 붙은 '경력 우대' 조건에서 멈춘다. 취업시장에서 경력은 사실상 당연한 전제가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5년 상반기 채용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조사'(이하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14만 4,181건의 채용 공고 가운데 82.0%가 경력직만을 요구했고 신입만을 채용하는 기업은 2.6%에 불과했다. 신입 채용이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의 입장에서 경력직 채용은

인력 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곧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이는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온다. 경력이 없으면 채용될 수 없고 채용되지 못하면 경력을 쌓을 수도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한 신입 공고의 요구 조건은 경력직 수준이다. 한 대기업 계열사는 "동종 직무 1년 이상 인턴 경험"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고 다른 기업은 포트폴리오와 실무 프로젝트 경험을 필수로 요구했다. 청년들은 사회 진입을 시도하기도 전부터 '경력 검증'에 부딪힌다. 부족한 경력을 보완하기 위해 자격증, 공모전, 어학 점수, 대회 수상경력 등 스펙을 쌓지만 기업은 여전히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며 채용을 꺼린다. 애초에 직무를 경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평가만 요구받는 현실은 청년들에게 큰 좌절로 이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대졸 청년 구직자의 53.9%가 경력 중심 채용을 가장 큰 취업 장벽으로 꼽았다. 또한 실제 청년 구직자의 53.2%는 대학 재학 중 직무 경험을 쌓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요구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지원 단계에서 탈락한다. '신입이지만 신입이 될 수 없는' 모순 속에서 청년들의 기회는 닫히고 있다. 이 같은 구조가 고착되면 사회 전체의 인력 선순환은 멈출 수밖에 없다. 신입 채용의 문이 닫히면 결국 경력자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 독일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교육을 책임지는 '듀얼 시스템'을 운영해 청년들이 졸업 전에 충분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 신입 일괄 채용 제도를 통해 잠재력을 보고 채용을 진행해 기업이 장기간 교육을 진행한다. 북유

럽 국가들은 청년 직업훈련 보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취업 연계를 돕고 있다. 공통점은 신입을 키우는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검증된 인재'만 찾는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 대학 모두가 신입 채용의 공백을 메우는 책임을 나눠야 한다. 정부는 청년 인턴십과 직무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경력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학은 전공 수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을 강화해 졸업 전에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역시 단계적 비용 절감을 넘어 장기적 인재 양성의 관점에서 신입 채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역량이 아닌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경력 없는 청년도 당당히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출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2 ▶2면에서 이어짐

이제는 달라져야 할 교내 장학금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단순히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사회가 함께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학 등록금이 대학생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장학금 제도는 헌법적 권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학의 장학금 제도는 그 취지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향상 장학금 ▲에텔바이스 장학금 II 등 다양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춘 듯 보이지만 실제 수혜자는 제한적이다. 성적 관련 장학금은 상위권의 일부 학우에게만 집중돼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 소득 연계 장학금 또한 소득분위 산정과 실제 생활 수준 사이의 괴리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과내 성적 1등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타 대학도 있다"며 "우리 대학은 그렇지 않고 인원을 넘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사회가 함께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학 등록금이 대학생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장학금 제도는 헌법적 권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학의 장학금 제도는 그 취지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평점 평균 2.4 이상이면 대부분의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흥익대학교는 ▲자주 ▲정진 ▲창조 ▲협동 ▲흥익인간 등으로 성적 관련 장학금을 세분화해 평점 평균 3.0 이상인 학생도 장학금 수령이 가능하다.

절차의 불투명성도 문제다. 부족한 안내와 짧은 공지 기간으로 신청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탈락 사유가 공개되지 않고 이의 제기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아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장학금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불투명한 행정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은 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

개선책은 명확하다. ▲세부 기준 ▲심사 과정 ▲탈락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내 공지를 강화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정비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개선은 단순한 행정 준비에 그치지 않고 학우들이 제도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결국 장학금 제도의 성패는 투명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 위에 학우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장학금 제도의 설계와 개선 과정에서 총학생회와 같은 학생 대표 기구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학우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닌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길이다.

대학본부는 장학금을 단순한 지원이 아닌 학우 복지를 강화하고 학업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 학우 또한 장학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장학금 제도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학우들이 차별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이자 대학이 학우를 존중하는 방식이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권의 보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장학금 제도는 대학이 해야 할 책무와 직결된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장학금 제도만이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대학과 학우 모두의 변화를 통해 우리 대학의 장학금이 이룸에 걸맞은 신뢰와 실효성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독자 참여와 기사 제보 바랍니다

세종대학우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 메일 press@sejong.ac.kr
- 인스타그램 @sejongpress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세종대신문

*세종대신문 앱으로 보는 방법
세종대학교 앱 → 상단 메뉴 → 대학생활 → 세종신문

세종 만평

최정희 (만화애니메이션학·21) 객원기자



안윤영 교수(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산업의 전통과 혁신을 잇는 호텔관광경영학과

우리 대학 호텔관광경영학과는 관광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68년 국내 최초로 개설됐다.

계열 신입생의 전공 선택이나 전과·복수전공을 고민하는 학우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지는 호텔관광대학장이자 관광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안윤영 교수와 호텔관광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이아름 학우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재원 기자 jaewonii@

H
O
T
E
L

호텔관광경영학과에 대해

국내 최초 호텔관광관련 학과로 현재까지 자리한 이유는
안윤영 교수: 호텔관광경영학과는 우리 대학 설립자 주영하 박사가 1990년대 이후 호텔관광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예측해 개설된 학과다. 졸업생은 호텔관광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학과의 명성을 이어왔다. 특히 우리 대학 호텔관광경영전공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생은 국내 교수 배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QS 세계대학랭킹과 상하이 랭킹(ARWU)에서 호텔-레저경영학 분야 국내 1위를 차지했다. 대기업 인사담당자나 고등학교 교사가 세종대학교 하면 '호텔경영' 또는 '호텔관광'을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호텔관광경영학과는 우리 대학 대표 학과다.

외식경영학과와 호텔관광경영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안윤영 교수: 두 학과 모두 인적 서비스를 주로 다루며 이

론과 실무가 결합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호텔관광경영학과는 ▲레저 ▲여행 ▲카지노 ▲항공 ▲호텔 기업을 주로 다루고 외식경영학과는 ▲식품 ▲외식 ▲조리 기업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교육 방식은

안윤영 교수: 환대기업* 실무자로서 기본적으로 함양해야 할 경영 역량과 함께 AI 시대에 요구되는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이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 중이다.

호텔관광경영학과 졸업생의 진출 분야는

안윤영 교수: 졸업생은 주로 ▲리조트 ▲여행사 ▲카지노 ▲호텔 등 환대산업 대표 기업으로 진출한다. 이외에도 ▲금

융기관 ▲공공기관 ▲일반 대기업 ▲해외 유수의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진학 후 공공기관 및 글로벌 기업으로 취업 ▲아일랜드 Trinity College Dublin 회계학 석사과정 진학 ▲영국 LSE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LG전자 미국법인에서 근무하며 미국 조지아텍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한 사례가 있다.

이아름 학우: 본인은 항공업에 관심이 있어 공항공사, 지상직 승무원, 항공사 본사 등으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환대기업: 숙박, 관광, 외식 등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환대산업에 속하는 기업. 호텔, 레스토랑, 여행사 등이 이에 포함됨.

호텔관광경영학과에 진학하며

호텔관광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이아름 학우: 중학생 때부터 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 느끼는 행복에 동참하고 싶다는 목표를 이루고자 호텔관광경영학과에 진학했다.

호텔관광경영학과 입학 전후 차이점은

이아름 학우: 입학 전에는 관광 업계의 각 분야를 세부적으로 탐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로는 전반적인 경영학 이론을 배우며 이론 중심의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이 기대와 달랐다.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다면

이아름 학우: 'MICE 산업론' 강의다. MICE는 ▲Meeting(회의) ▲Incentives Travel(포상 휴가)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 산업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관광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시회나 박람회를 직접 방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팀별로 MICE를 기획해 보는 과제는 이색적인 경험이라 인상 깊었다.

'호텔관광경제학' 강의도 기억에 남는다. 1학년 때 배우는 '경제학원론'은 경제학의 기초를 배우는 것일 뿐 관광 분야의 경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해당 강의에서 관광경제학을 집중해서 배웠고 실제 관광기업의 주가를 분석하며 환대산업의 현실적인 측면까지 학습할 수 있었다. 관광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관광이 사회 분야와 구별되는 특징들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전공 선택 후 가장 의미 있던 순간은

이아름 학우: 배운 이론이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때 신기했다. 예를 들어 비행기 티켓 가격이나 호텔 숙박료의 상

승과 하락을 예측해 맞췄던 경험, 축제나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관광객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순간처럼 배운 지식이 실생활에서 활용될 때 전공 선택이 보람으로 다가왔다.

호텔관광경영학과 내 연구소의 연구 주제는

안윤영 교수: 호텔관광경영학과 내에는 다양한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관광산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대학원생 유치와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관광산업데이터분석랩(TIDAL) ▲관광산업 미래 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연구과제 수주 활동을 하는 관광혁신연구소 ▲전시컨벤션산업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MICE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시컨벤션산업연구소 ▲'호텔관광경영연구' 저널 발간 및 다양한 연구과제 수주활동을 하는 관광산업연구소 등이 대표적이다.

호텔관광경영학과를 꿈꾸는 이들에게

호텔관광경영학과만의 특별한 학과 행사나 전통은

이아름 학우: 호텔관광대학은 소모임 활동이 활발하다. 학술 소모임부터 공연 소모임까지 종류가 다양해 대부분의 호텔관광대학 소속 학우들이 1~2개씩 가입해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는다. 보통은 1~2학년때 주로 가입해 활동하는데 본인은 코로나와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

호텔관광경영학과의 인재상은

안윤영 교수: 호텔관광경영학과의 인재상은 네 가지로 정의된다.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가치 제고와 확산에 공헌하는 글로벌 리더 ▲급변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리더 ▲기업가정신으로 미래 사회 발전에 일조하는 도전적 리더 ▲나눔의 정신으로 공유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창조적 자본주의 리더다.

호텔관광경영학과 진학을 꿈꾸는 예비 학우들에게

안윤영 교수: 호텔관광산업은 인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AI와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노동력 대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및 국제적 정치, 경제 문제 등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신속한 대응과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MZ 세대를 뛰어넘는 알파 세대가 등장함에 따라 호텔관광산업 고객의 이질적인 레저 문화와 소비 가치 변화를 파악해내는 능력 및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 경영전략 구사가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맞춰 호텔관광경영학과에서는 전 세계 상위 1% 연구자인 특훈교수 한희섭 교수를 비롯해 국내 최고의 교수진이 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으며 국내 최고(最古, 最高)의 학과로 자리매김했다. 대양AI센터 조리실습실, 제우스그릴, 카지노 실습실 등에서 최첨단 실습 시설을 통해 실무 체험도 만끽해 보면 좋겠다.

이아름 학우: 관광업은 연봉이나 근무 여건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자체의 관광자원 또한 풍부한 편이 아니므로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업계 전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막연히 여행이 좋거나 관광이 즐거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호텔관광경영학과에 오기를 희망한다면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경상계열 내에서 호텔관광경영학과로의 전과나 복수전공을 고려한다면 큰 차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많은 수업이 대부분 경영학에서 파생된 내용이기 때문에 경영학 부나 경제학과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완전히 다른 계열에서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학우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관광학 자체가 흥미로운 학문이며 관광업을 통해 바라보는 사회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이란 의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펼쳐진 저성장, 저금리, 고규제 경제 환경을 대변하는 경제-경영 용어